

‘고안(弘庵)’

고안

'조안'이나 '젠안'과는 달리 '고안'은 우라쿠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라쿠엔이 개원한 지 10 여 년이 지난 1986 년에 나카무라 마사오(中村昌生)와 교토전통건축기술협회가 설계한 현대적 디자인의 다실입니다. 역사적인 2 개의 다실은 평소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, 고안은 우라쿠엔의 일반 고객을 위한 카페공간(카페테리아)으로, 최대 20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다회(茶會, 차모임)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.

고안은 당시 메이테쓰의 사장이었던 다케다 고타로(竹田弘太郎, 1916-1991)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. 현관에 걸려있는 편액은 젠안의 편액을 새긴 인물의 후계자인 오모테센케 14 대 이에모토(한 유파의 정통을 잇는 집의 당주) 지묘사이(而妙齋, 1938-)가 작성한 것입니다.

고안에는 2 개의 응접실이 있는데, 넓은 방은 15 조(약 24 m²)로, 조안처럼 아담한 다실에 비하면 상당히 넓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중앙에 위치한 큰 도코노마(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)의 천장으로 8 세기 초의 삼나무판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.

기후(寄付)라고 불리는 작은 방은 8 조(13 m²) 넓이로, 주로 넓은 방에서 행해지는 다회의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기후에서 다회를 여는 경우는 없지만, 도코노마나 화로 등 필요한 설비는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. 기후의 도코노마에는 넓은 방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소박한 분위기입니다. 오른쪽 기둥은 적송의 통나무를 껍질째 가공한 것으로 바닥에는 작은 켜기가 박혀 있습니다. 이 삼각형으로 잘려진 장식은 죽순 모양을 하고 있어서 '다케노멘(筍面)'이라고 부릅니다. 젠안에 있는 도코노마 중 하나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

고안으로 이어지는 길에 스이킨쿠쓰라고 하는 음향장치가 숨겨진 돌로 된 수수밭이 있습니다. 이 수수밭을 둘러싼 조약돌 아래에는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드는 도자기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. 히샤쿠(물뜨개)로 물을 부르면 물방울이 항아리 속에 떨어지면서 거문고의 음색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